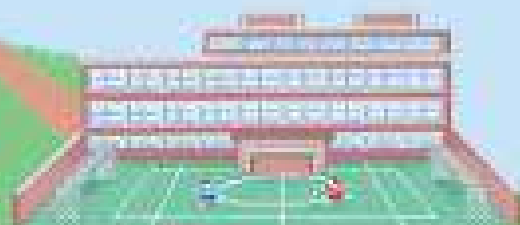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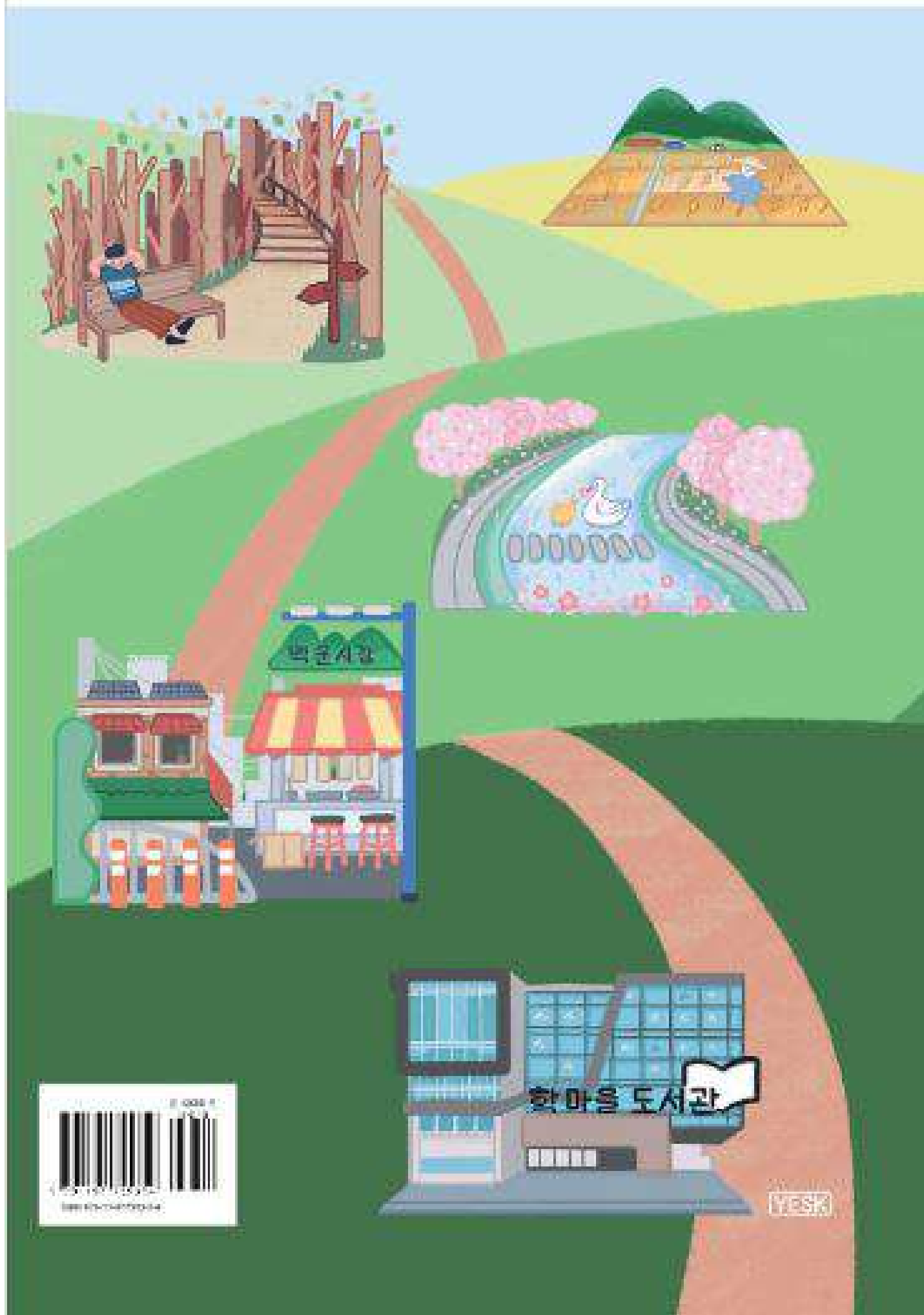


도봉사람들은 어디를 다녔을까? 2





YESK

기본정보

| | |
|----------|---|
| ISBN | 9791197755354 |
| 발행(출시)일자 | 2022년 12월 20일 |
| 쪽수 | 268쪽 |
| 크기 | 148 * 211 * 19 mm / 564 g 판형알림 >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21세기 도봉특별구 시그널 |



토이60%↓ · 책의날 · 베스트 · 신상품 · 이벤트 · 사은품 · PICKS · CASTing · 교보ONLY

할인혜택 · 출석체크 + /

국내도서 / 인문 / 인문학일반 / 인문교양

도봉사람들은 어디를 다녔을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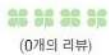


21세기 도봉특별구 시그널 4

도봉문화원 주민작기 지지(글)

도봉문화원 · 2022년 12월 20일

0.0



(0개의 리뷰)

평가된 감성태그가
없습니다



소득공제

10% 10,800원 12,000원

적립/혜택 600P

배송안내 도서 포함 15,000원 이상 무료배송

5월 3일(수) 도착예정

서울시 종로구 종로 1 변경

알림 신청하시면 원하시는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신청

매장 재고·위치



기억을 노래하는 우이천 길 위에서 만나는 작은 세상

- 우은주 -

봄을 노래하는 우이천 가족들

우이천은 도시에서 만나는 생태 그림이다. 흐르는 물길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는 자전거의 속도를 줄이게 하고, 사람들의 걸음을 느슨하게 한다. 이곳은 계절을 만지고, 새의 직자권을 듣고, 흙내음을 간직하게 한다. 오직 자연의 속도만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우이천의 봄은 곳곳에서 연신 꽃잎 폭죽이 터진다. 3월의 요란함은 바쁜 일상에서 잠시 쉬어가게 한다. 따스한 햇살을 머금은 씩바귀, 애기똥풀 그리고 개나리의 노란 미소가 번진다. 물오른 나뭇가지에 어린 녹색이 수줍게 치장하고,



상품정보

리뷰 (0)

교환/반품/품질

- 강렬한 빨강과 하양
- 내겐 너무 특별한 보라
- 단골이신가요?

접기 

책 속으로

1.기억을 노래하는 우이천, 길 위에서 만나는 작은 세상 / 우은주

학교 가는 길에서는 더 이상 흙내음이 나지 않고 아파트 단지와 아스팔트 도로가 우리가 누비던 공간을 덮었다. 30년 만에 모교를 찾은 친구는 내비게이션을 켜야 길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가 아는 공간은 너무도 많이 변해 기억 속에만 남았다. (44쪽)

2.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초안산 반려견 놀이터, 도봉의 펫플레이스 / 양은경

내가 반려동물들 통해 받은 대체로운 긍정적 감정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질 수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그런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사람을 만나고 도움을 거닐 것이다. (56쪽)

3. 정겨운 쌍문동, 차미리사길과 백운시장을 거닐다 / 원윤영

어느 날은 머릿속이 복잡해서 걸었고 어느 날은 우울해서 걸었다. 기쁘고, 화나고, 슬플 때도 이 길을 걸었다. 나는 이 길을 보면서 다채로운 풍경에 위로받았지만 사실 이 길이 보는 나의 모습도 다채로웠을 것이라 생각하면 재밌다. (82쪽)

4. 숨'과 '숨'이 있는 쌍문근린공원 / 민명식

고장난 나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었던 곳, 그리고 하루하루 내 정신을 맑고 한하게 환기할 수 있는 썸문 근린공원이 새삼 아름답다. 나의 것은 아니지만 내 것처럼 생각하기로 했으니, 이곳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106쪽)

5.100세를 향해 가고 있는 어르신, 창동초등학교 / 이혜경

지금도 그 편익점 앞을 지날 때면 동그란 얼굴에 동그란 눈에 목소리 톤이 밝고 높았던 오렌지마트 슈퍼 주인아주머니가 그림과 궁금
다 뭘 하고 계십니까? (128쪽)

-원앙-

먼저, 우리 동네 천연기념물 원앙 가족이다. 수려한 아빠 원앙에 비해서 엄마 원앙은 너무 수수해 보인다. 뽀뽀한 노란 볼때기를 가진 못난이 새끼들은 도무지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다. 아미도 진짜 같은 가짜 봉제 인형을 닮은 것 같다. 모자 달린 연갈색 망토를 입은 새끼들은 물 위로 흘러내린 버드나무 가지 아래에서 해엄을 치고 있다. 양중맞은 녀석들의 수영하는 모습이 가는 길을 멈추게 된다.



아기 원앙과 원앙부부

-왜가리-

길을 따라 한참을 내려가면, 움직임이 없는 왜가리가 고고히 서 있다. 아주 드물게 정적을 깨고, 느닷없이 날개를 활짝 펴고 '와, 와'거리며 훌쩍 날아올라 화들짝 놀란다. 도도한 여인의 입에서 거친 농군의 목소리처럼 이색하다. 옛